

# 부산 찬불가 수준 UP!

## 부산서 처음 열린 '찬불가합창경연대회'



부산불교연합회장 대성 스님이 대상을 차지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4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찬불가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다. 18개 사찰의 합창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의 열기는 첫 대회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1, 2층의 객석도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 주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귀린) 주관으로 열린 첫 찬불가 경연대회의 막이 오르고, 맨 먼저 관음사 환희합창단이 무대에 올랐

다. 찬불가 한국, 자유곡 한국을 선보여야 하는 대회 규정상 18개 팀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찬불가와 일반에 친숙한 민요, 외국곡, 가곡 등을 불렀다.

선암사, 여여선원, 범어사, 영주암, 해원정사, 한마음선원, 황정사 등 사찰명이 호명되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웅원 나온 신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합창경연대회

###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대상

### "음성 포교 중요성 인식 계기"

가 합창단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 신도들이 다함께 참여한 가운데 누가 대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1, 2부 나눠 진행된 경연이 끝나고 초대 가수 합중야, 문성재의 축하공연에 이어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미륵사, 육련선원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관음사의 황정사 합창단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모든 참가팀에는 참가상이 주어졌다.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된 대회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네 시간에 걸쳐 부산시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된 이번 대회는 부산 찬불가 합창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 자체가 신선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회향했다.

심사평에서도 언급되었듯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팀들 중 발성, 발음, 가사 전달, 대회 규정 준수 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부족한 팀이 아주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대회가 단순히 우열을 가리는데서 그치지 않고 부산 사찰 합창단 수준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 진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회 운영 미숙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선 없이 18개 팀이나 본선에 오르다 보니 수준 높은 경연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대 후반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참가 자격, 대회 규정, 심사방법, 접수 방법 등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대회를 둘러싼 잡음을 없애는 것도 남겨진 과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팀들은 "경연대회를 위해 맹연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찬불가를 수도 없이 부르고 또 부르며 부처님 말씀을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고, 찬불가를 통한 음성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대회의 의미를 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 부처님 아래 모두가 하나

#### 부산 흥법사에서 만난 대만·한국 불자들이

4월 18일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 공양간이 시끌벅적하다. 중국어로 대회를 주고받는 소리와 함께 기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대만 불광산사에서 온 승만서원 회원 25명이 중국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흥법사 대중들에게 저녁 공양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현지에서 가져온 재료들에 보태 한국시장에서 장을 봐 온 먹거리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은 눈 깜짝할 사이 동이 났다.

저녁공양 후에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흥법사 어린이들의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며 시작된 문화 공연은 승만서원의 중국 소수민족 춤, 흥법사 신도의 가야금 연주, 승만서원 회원의 독무, 김진홍 전통출연연구회 회원인 수월심 보살의 대금과 한량무 등이 번갈아 이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날 공연에는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각사 스님과 승만서원을 인솔하고 온 묘가 스님 등이 참석해 양국의 문화 공연에 박수를 보냈다. 승만서원의 황려옥 씨는 "한국 불자들의 친절



대만 불광산사 승만서원 회원들이 중국 소수민족 춤을 선보이고 있다.

### 승만서원, 교육 일환으로 흥법사에서 불법 흥포 양국 음식 나누고 공연 즐기며 마음 공유

마지막 달을 불광산사에서 보내고 둘째, 셋째 달은 해외를 돌며 각국의 불교 문화를 익히고 대만의 불교를 전하며 공부할 예정이다.

해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불교회 부산지부인 흥법사를 방문해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머물게 되는 승만서원 회원들이 한국 불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흥법사에 머물며 다도, 발우공양, 천연 염색 등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한편, 평범한 한국 사찰의 일상을 접하고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 등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등 뻘뻘한 일정을 소화해 내는 중이었다.

승만서원이 대만 음식을 접대하겠다고 나서자 흥법사의 보살들도 오색칠절판, 수삼냉채, 감자크로켓, 나물 등을 대접하겠다고 나서 저녁공양은 법당 앞에 뷔페식으로 한상 가득 차려졌다. 승만서원이 만든 쌀국수와 대나무잎밥

함께 밝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전통춤과 아이들의 공연이 신났고, 음식 맛도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흥법사 법혜심 보살은 "대만 불자들이 한국 불자들에게 비해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나라에 살지만 부처님 제자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음식도 함께 만들고 나눠 먹고 문화 공연도 함께 하니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 나라는 달라도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 이날 행사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마무리됐다. 천미희 기자

####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 울산 노인전문요양원 '도솔천' 개원

### 기초수급자 무료로 이용 지역민에 시설 개방 예정

질보로 된 궁전에 한량없는 하늘사람이 사는 곳 도솔천. 언양에 치매, 중풍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노인전문요양원 도솔천(원장 오세경)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이 2002년 복지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문을 연 도솔천노인요양원은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일반 요양원보다 앞선 시설과 우수한 인력으로 노인들을 보살피게 된다.

특히 울산남구노인복지관 부장, 남구노인주간보호센터 소장 등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14년 여 동안 활동해온 복지 전문가가 관장을 맡으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간다는 포부도 크다.

1500여 평의 부지에 연면적 543평의 도솔천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최선의 설비를 갖추고 양, 한방 진료, 물리 치료, 작업치료, 운동 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명상, 야외 놀이, 목욕 등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절차를 거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의 이용료로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입소 희망자를 받고 있는 도솔천노인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뿐 아니라 한 때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시설내 목욕탕을 개방하고 요양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늘어나감으로써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052)263-3080

천미희 기자

### 약사여래불 점안 및 만다라展

울산 영축사(주지 각관)가 5월 1일 약사전 약사여래불 점안 의식과 함께 티베트 만다라 200여점을 일반에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4년 전 창건된 영축사는 티베트 만다라, 탱화 등을 선보이는 상설 전시장을 열어 전 리의 세계를 구현해놓은 만다라의 세계를 일반에 알리고 생활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는 티베트의 불교문화를 한국불교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055)381-6631

천미희 기자



### 해종 스님 <새벽처럼...> 출간기념법회 성황

부산 감포사 주지 해종 스님의 저서 <새벽처럼 깨어있으라>의 출간기념법회가 4월 17일 열린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렸다(사진). 감포사 신도회가 주최하고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펴낸 도서출판 부다가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뜻 인연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스님 1백여명, 기관장 불교계 단체장 등 이날 참석한 1천여 불자들에게 해종 스님은 저서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보시하고 저녁 공양을 대접했다. 이 자리에서 법어에 나선 고산 스님은 "자은 스님을 40여년 시봉한 해종 스님의 정진력은 이시대 수행자들의 귀감이 된다"고 찬탄했다.

해종 스님은 <새벽처럼 깨어있으라>를 읽는 불자들이 무상한 삶에서 무상치 않음의 길을 보여주시 부처님을 따라 수행 정진하는 불제자의 길로 나아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 기도 prayer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당신이 우주 안의 모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하라

몸이 아플 때, 사업에 실�했을 때, 삶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신에게 염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침묵을 통해서든, 찬송가나 명상을 통해서든,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때 우리는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되짚어 준다. 그리고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탁월한 지음 | 김원희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새월이 흐름수록, 화가 날 때마다 다시 꺼내 읽게 되는 책!  
탁월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5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5년 한국 방송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파격적 책  
탁월한 지음 | 진주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탁월한 지음 | 박현정 옮김 | 10,500원